

‘선(善)을 심어야 선(善)이 나온다’ 김성중 (주)인성이앤씨 대표이사·회장



선순환론(善循環論)의 주창, 바른 심성으로 기업을 경영하다



▲김성중 (주)인성이앤씨 대표이사·회장이 지난 해 3월 제12회 도전 한국인상을 받고 있다.

[시사앤피플] 언제나 “선한 마음이 선한 삶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선순환된다”는 선순환 논리를 강조하는 김성중 (주)인성이앤씨 대표(63)를 갑진년 초에 만났다.

김성중 대표는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건설업계에서 모범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원만한 기업인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말했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해야 ‘위대하다’는 말처럼 그의 실패와 극복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차분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1997년 IMF 당시 쓰라린 사업 실패를 당하여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한다. 당시 고난의 휘용돌이가 불어 닥칠 때 그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전진해 성공의 길로 들어섰다.

김 대표는 1990년 초 상경해서 3년 후인 1993년 (주)신안지질을 창업 해 한 때 실속 있는 사업체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IMF 당시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의 실패가 도미노처럼 밀려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는 1998년 사업장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트럭 1대를 가지고 고창(고향)으로 낙향해 막노동을 하게 됐다. 그는 “당시가 가장 힘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여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장기(신장) 불법판매 스티커를 보고 유혹을 느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 힘이 돼 준 사람 때문에 재기의 꿈을 갖게 돼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힘이 돼 준 사람은 그의 부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육아와 가정, 기본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다시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 때 가정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갖게 돼 서울로 운전대를 돌려 상경하게 된다. 그는 1999년 서울로 올라가 다시 건설업을 시작하게 돼 오늘의 (주)인성이앤씨를 뿌리내리게 했다.

(주)인성이앤씨는 보링 그라우팅과 미장·방수 조적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로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이 됐다.

2001년 그는 ASG공법으로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그 특허로 당해 연도에 남강 와룡제 수해복구공사(진주)를 수주함으로써 자산감을 갖게 돼 일익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다.

ASG공법은 품질 우수성,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 평가 받아 업계의 경쟁력을 갖게 됐으며, 2019년 (사)대한기술사회, 2022년 (사)한국지하안전협회, 지난해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토기회)로부터 기술인증을 받았다.

김성중 대표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 출신으로 농촌(대양마을)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부모로부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농심의 명언을 뼈에 새기면서 생활했다.

그의 고향 지인 김 모(68)씨는 “성중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예의 바르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며, 그의 바른 인성을 칭찬했다.

김 대표가 1990년 초 상경과 90대 말 재상경은 상황이 달랐다. 전자는 막연한 도전이었다면 후자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구체적 꿈과 비전을 가진 재도전이었다.

그는 창의적 건설기술과 차수공법으로 건설업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뜨고 있었다. 토목공사에서 지반주입 공법으로 가성비가 좋은 기술(ASG공법)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김 대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작고하신 부친의 가르침이 어려울 때 마다 ‘유훈으로 들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 “어디를 가든 바른 처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성중 대표가 전북 부안군 나누미군농장학재단에 3백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솔직히 50대 중반까지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 왔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과 회사가 하루 하루 커가는 것을 보고 늘 감사”했으며, “어느 때가 자립기반이 서게 되자 비로소 그 때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그는 사훈이 없이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다 회사 규모가 커가고 구성원이 늘어가다 보니 종사자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됐다.

그래서 만든 사훈(社訓)이 ‘합리’(合理)였다. 평소 합리적 사고와 합리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사훈을 ‘합리’로 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부안군 나누미군농장학금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크고 작은 이웃돕기를 해 왔다. 최근 그는 고향인 하남지역 선후배 기업인들을 초청해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성중 대표는 귀소본능이 강한 듯 싶다. 인터뷰 도중 어릴 적 대양마을(大陽里)에 대한 추억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그가 자란 곳은 1760년 간행한 『여지도서』에 흥덕현의 일부에 집성촌이 있음을 알게 됐다. 추후 마을 이름처럼 대양(大陽)이 돼 큰 기운을 받기 바란다.

김성중 대표가 조용하면서도 남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기업을 반석 위에 올리고, 창의적 마인드로 건설 특허를 받아 내 오늘의 ㈜인성이앤시를 세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의 부친의 말씀이 모두 이뤄졌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가 변화무쌍하다. 국내·외적으로 금리인상과 소비둔화, 수출부진과 경제 위축 등 만만치 않다. 이럴 때 김성중 대표처럼 정도를 걷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라 본다.

(주)인성이앤씨 오랜 경험과 최고의 기술!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보링그라우팅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건설기초
산업의 믿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갑니다.

고창 청보리밭

친환경 고강도 ASG 차수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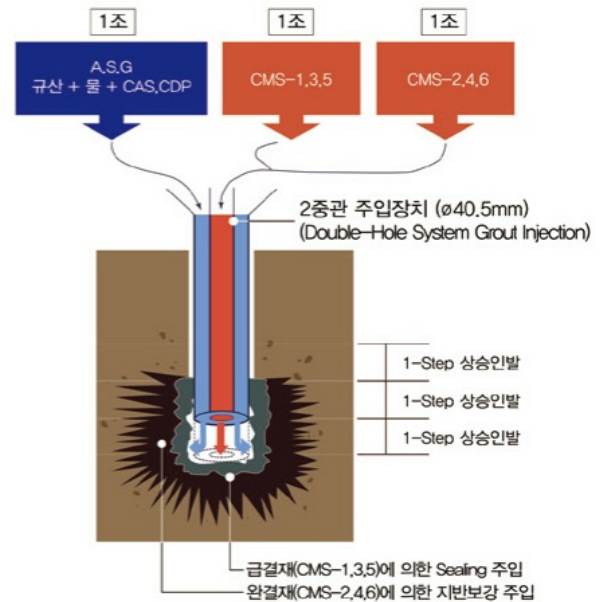
upgrade 2023

ASG그라우팅 공법

활성실리케이트 약액을 이용한 지반주입공법



3조 교반장치(물유리 1조, 급결재 1조, 완결재 1조)



〈A.S.G 공법에 의한 지반처리 개념도〉



주식회사 인성이앤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673번지 가산2차 SK타워 16층 1611호

TEL. 02-2057-8677 FAX. 02-2057-8675 www.isenc8677.co.kr

일상의 안전
누리는 행복



재난안전미래전략연구소

협력
업체
Cooperation

비상
대응체계
Emergency
Reaction

안전
교육
Education

안전
진단
Diagnose

컨설팅
문의
Consulting

“
We serve!
우리는 봉사한다!
”

날마다 날마다
국민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한다는
선포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며
오늘의 행복과 고객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며 나아가는 **서울소방**입니다.



(주)서울소방 대표이사/관리사 손주성

- 社訓 -

一切唯心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주)서울소방

본부직할 / 도봉지사 / 강동지사 / 영등포지사 / 인천지사 / 수원지사 / 의왕지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91길 88-10

전화 **1544-5904** 팩스 **02-956-2775**

홈페이지 **서울소방.kr/sfire.kr**